

(사회 : 김주민 청년, KSCF)

강문규 오재식 선배님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이 자리에서 함께 듣는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를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 이원희 사무총장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하늘의 말씀은 1980년에서 83년까지 KSCF 총무를 역임하신 정상복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나눠주시겠습니다.

(성경봉독 : 이원희 사무총장,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

성경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느님께 감사 드립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느님께 감사 드립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는 구원받을 사람에게나 멸망당할 사람에게나 다 같이 풍겨 나가지만 멸망당할 사람에게는 역겨운 죽음의 악취가 되고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감미로운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향기의 구실을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파는 잡상인들이 아니라 하느님의 파견을 받고 하느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설교 : 정상복 목사, 전 KSCF 총무)

오재식 전 KSCF 사무총장님 그리고 강문규 한국YMCA연맹 사무총장님이셨던 두 분의 10주기 추모일을 기념하면서 오늘 추모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두 분에게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두 선생님 앞에 너무도 과분하고 가당치 않는 일이나, 요새 세상이 하도 요상하고 어수선하고 이상한 세력들이 등장을 해서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고 혼탁한 악취를 풍기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울화통도 터지고 안타깝기도 하고, 이래서 오늘 두 분 선생님 앞에 꾸념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그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내용입니다. 사도바울은 먼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 개정개역 성경으로 보면은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항상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는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게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편지에 쓰는 이유는 사도바울이 아마도 이런 것을 연상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도시에 개선문을 설치하고 전쟁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에 승리하면 개선행진을 했습니다. 군악대가 팡파래를 울리고 보무당당한 로마 군인들이 행진을 하고 그리고 많은 꽃들을 들고 향기를 풍기고 향내 나는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고 그 뒤에는 전쟁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질질 끌면서 행진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로마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은 팩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이데올로기로 해서 세계를 하나하나 정복했습니다. 사도바울은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두꺼운 벽이 삽시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십자가의 도의 복음이 그를 사로잡고 복음의 개선 행진에 참여하게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바울은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화요, 팩스 로마나는 가짜,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이 개선행진에 참여 하면서 늘 항상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 글을 쓴 것 같습니다.

중요한 말은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행진을 하면서 온 시내를 진동했던 그런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희생 제물에 받쳐진 향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할 때 흠없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향기를 여호와께 드림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안전케 해주시는 구약 시대의 희생 제사의 향기 그 향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를 생

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죄와 사망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외아들을 바치는, 그 십자가에서 나는 향기, 구약시대에 들이던 희생제물의 향기와는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구약성경의 희생제물은 인간이 흠없는 양을 선택해서 불에 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인 반면에 십자가의 향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숯한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면서, 죽게까지 하시면서 내는 향기, 바로 그 향기를 사도바울은 생각하면서 각 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15절 16절을 보면 이 향기는 둘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향기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자고, 멸망받은 자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지만은 이것은 어떤 사람은 생명의 향기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사망의 향기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의 통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향기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향기를 베푸시는 십자가의 향기, 그것이야말로 바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사도바울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나오면서 그는 이제 마지막 17절에 개선 행진이 아니라 복음의 향기를 들고 행진하는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숯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바울의 복음의 개선 행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는 확신하고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받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환란과 핍박과 죄와 죽음과 흑암의 권세 이런 것이 판치는 세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런 세상을 이기고 복음의 개선 행진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향기로 사도바울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펼칠 메시지의 가장 핵심은 생명입니다.

사도바울은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 생명의 향기를 몸에 품고 복음의 개선 행진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혼잡한 사람과 같이 이 세상 속에서 혼탁하지 않고 순수하게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을 향해서 말한다. 선포한다. 외친다. 운동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미가 그립습니다.

콕콕 막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숨 쉴 수 없을까? 냄새 맡을 수 없을까? 냄새

풍길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두 분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들에게 스며들고 우리에게 스며든 이 모든 그리스도의 승리의 향기, 생명의 향기, 복음의 향기, 이것이 이 혼탁한 세상, 거꾸로 가는 역사의 바퀴를 바로 세웠고, 그리고 참으로 향기로운 향기라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 그런 뜻에서 우리는 다짐하고 두 분께서 우리에게 주는 향기가 그립고 그렇습니다.

저는 학생 시절에 오재식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당시 KSCM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오 선생님은 이제 KSCM에 잠시 간사로 계시다가 YMCA 연맹으로 옮겼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세 단체 함께 YMCA YWCA KSCM이 KSCC 학생운동협의회를 통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겨울철 되면 동계 대학은 세 단체가 공동으로 했습니다. 그때 저는 주로 프로그램 기획과 진행을 담당하는 학생이었는데 오 선생님이 바로 실무를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늘 선생님과 함께 어울려 다니고 밤늦게 다니고 함께 토의하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오 선생님에게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막힘이 없었습니다. 무슨 문제든지 가지고 의논을 하면 대안을 내고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미래의 신선한 새 것을 우리에게 집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오 선생님을 졸졸 따라다녔고 그를 괴롭혔고 또 그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오 선생님 하시면 새 것을 우리에게 주는 분, 막힘이 없는 분, 열린 자유주의자라고 늘 그렇게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후에 여러 모양으로 접촉하고 교훈받고 학습 당하고 하면서 오 선생님은 우리에게 기독교학생운동의 사표가 되었습니다.

강문규 선생님은 저희가 학생 때에는 그렇게 일본에 계셨기 때문에 접할 기회가 없고 행사가 있으면 가끔 한국에 나와서 얼굴은 뵈었지만 접촉이 잦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71년도 KSCF 간사로 일하기 시작했을 때 WSCF 아시아 사무국에서 각국의 학생 지도자들을 모아서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여해서 약 두 달, 거의 석 달에 가깝게 함께 국제 프로그램에 참석했을 때, 그때 세련되게 국제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진행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저런 분도 계시는구나 그리고 75년도부터 한국에 오셔서 KSCF 이사장을 하고 그러면서 자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74년 민청학련사건 이후에 어떻게 보면 풍비박산이 난 KSCF, 그것을 이사장을 하시면서 그 후에도 계속 이사로 하시면서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위기의 시대에 KSCF를 끌고 나가시고 우리가 뒤를 따라갔던 강문규 선생님은 저희들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냉철한 합리주의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칙을 중시했습니다. 원칙을 벗어나면 절대 양보가 없고 원칙을 고수합니다. 그리고 그는 시스템화한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룰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문규 선생님의 리더십을 본받고 배우고 함께 모시고 운동을 해왔습니다. 이제 제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두 분은 우리의 향기였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종교한 화가 조르주 루오라는 화가가 있는데, 이 분은 판화로 잘 그렸습니다. 판화의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찌는 도끼에 향을 남긴다.' 그렇게 그런 이상한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향나무는 그리스도였습니다. 도끼는 그를 쓰러뜨려 죽이는 도구입니다. 그래도 향나무는 도끼에게 향기를 남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처형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옆에 함께 달린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모든 백부장과 관졸들은 십자가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바로 저 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오, 진짜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두 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였고 우리에게 향나무 향기를 남긴 분들이셨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향기를 예수님에게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십자가에 향기였습니다. 시골 뜨기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면서 십자가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으로 입에 올리기도 싫은 현 우리의 시대에 두 분의 향기 우리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고 퍼져나가서 새 시대에 새로운 사회가 건설되는데 합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